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484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6월 27일 (음력 6월 2일) 화요일

해수부, 당초보다 40% 줄여 20선석만 개발

광양항 대폭 축소 강력 반발

전남도·광양시 "양항정책 포기" 맹비난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반 개발한다는 정부의 양항(兩港·Two Port) 정책이 결국 좌초의 위기를 맞았다.

26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정비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양항은 당초 오는 2011년까지 모두 33선석(배가 접안하는 자리)을 개발하기로 했으나 13선석을 줄여 20선석만 개발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발 계획 선석의 40%가 줄어든 것이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해수부는 경쟁관계에 있는 부산항에 대해서는 당초 개발 예정인 30선석 중 단 3개만 줄여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해 대조를 이뤘다.

결국 정부가 지금까지 양항 정책을 공언했지만 결국 부산항을 집중 개발하는 원포트(One Port) 시스템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의구심을 불러올 수 밖에 없게 됐다. 정책 신뢰성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광양항 개발 축소에 대해 전남도와 광양시 등 해당 지자체는 양항정책을 흔들려는 정부 일각의 움직임이 결국 이같은 결과로 귀결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필두로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광양·부산 동반 개발이라는 양항정책을 입버릇처럼 떠들다가 이제 와서 양항정책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발표된 용역안에 따르면 광양항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1단계와 2단계, 그리고 올해 말 완공예정인 3-1단계와 2008년 완공될 3-2단계까지는 2011년까지 건설을 추진하되, 민자유치 협상중인 율촌 제2산단부두 9선석 등은 향후 물동량을 보아가며 추진한다고 되어있다.

해수부는 이처럼 광양항 개발계획을 축소·조정한 것과 관련 전남도에 '선석개발보다는 물동량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그러나 해수부가 광양항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광양항이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수송망과 배후단지 개발, 물류기업 유치 등의 노력은 소홀히 한 채 선석개발에만 열을 올렸던 해수부가 '물동량 창출'을 위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이제와서 개발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 들어 광양항은 물동량이 30% 정도 늘고 있는 반면 부산항은 정체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양항 개발계획 축소규모가 부산항보다 상대적으로 큰 이번 용역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이제부터라도 물동량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용역 안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용역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 지자체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께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기본 계획 정비안을 확정하고 올해 10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급식 공급업체 특별점검

식약청이 26일 광주시 북구 월출동에 있는 CJ 푸드시스템 물류센터를 비롯한 대형 식자재 공급업체 6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였다. 식약청은 27일까지 무허가 식품의 유통 여부,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오는 29일부터 농림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 핌 베어벡 수석코치

대한축구협회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딕 아드보카트 축구대표팀 감독의 후임에 핌 베어벡 수석코치를 새로운 사령탑으로 확정했다.

〈관련기사 22면〉

이영무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26일 오후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아드보카트 감독의 후임으로 베어벡 수석코치를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축구는 데트마르 크라머(독일), 아나톨리 비쇼베츠(러시아), 거스 히딩크(네덜란드), 움베르투 코엘류(포르투갈), 요하네스 본프레레(네덜란드) 감독, 딕 아드보카트 감독에 이어 역대 7번째로 외국인 사령탑을 영입했다.

신임 베어벡 감독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 감독과 함께 수석코치로서 '4강 기적'을 이끌어 냈으며, 2006 독일월드컵에서도 아드보카트 감독을 보좌하면서 원정 월드컵 첫 승과 원정 월드컵 최다승점(4점)을 따내는 등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 지도자로 인정받아왔다.

베어벡 감독의 계약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08년 8월말까지 2년이며 연봉은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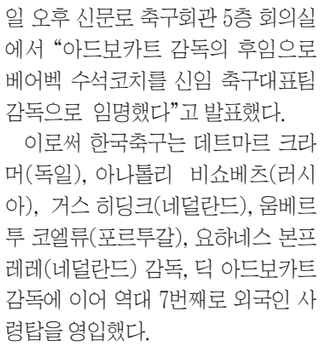
오늘밤의 월드컵 (16강)

<28일>

브라질	도르트문트/00:00/KBS2·MBC·KBC	가나	
스페인	하노버/04:00/KBS2·MBC·KBC	프랑스	

스코어 보드

잉글랜드	1	16강	0	에콰도르
포르투갈	1		0	네덜란드



광주 외곽도로 숨통 트인다

하남산단 외곽도로·북부 순환도로 신설…북구 일곡~용전 도로 확장

건교부 '혼잡도로 개선 사업'

광주의 간선도로 중 고질적인 혼잡구간인 광산구 흑석사거리와 북구 양산동·용전동 등 외곽지역 교통정체가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교통혼잡이 심각한 광주와 대전 등 5대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망 정비를 위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착수, ▲하남산단 외곽도로(어등산~하남산단 뒤편~첨단단지 과학기술원) 12.0㎞ 신설 ▲북부 순환도로(북구 망월동~일곡동 사레지오고~빛고을로) 6.4㎞ 신설 ▲북구 일곡~용전간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등 광주 사업 3건을 비롯한 총 5개 도시 15건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혼잡도로 개선에 총 공사비의 50%까지 지원한다. 하남산단 외곽도로에는 2천687억원이, 북부 순환도로 1천235억원, 일곡~용전 도로에는 327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광주시는 현재 설계 중인 하남산단 외곽도로를 오는 2008년 착공하며, 나머지 2곳의 도로도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 외곽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하남산단 외곽도로는 현재 설계를 진행중이었으며, 나머지 2개 구간에 대해서도 신설 또는 확장을 추진중이었다.

이중 신설될 하남산단 외곽도로는 출퇴근시 교통정체 구간인 광산IC·흑석사거리 구간의 교통량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부 순환도로가 완공되면 광주 지역 교통 형태상 고립지역으로서 병목현상을 보이는 양산동 지역의 혼잡이 해소, 양산동에서 서광주IC를 통해 시내방면으로 진입하거나 상무지구로 가는 차량들의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곡~용전간 도로도 확장되면 출퇴근시 북광주IC나 시내와의 연결이 쉬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도로 완공을 위해서는 광주시가 4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난관이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관문 인근에 위치한 도로들이어서 일반 운전자와 물류의 소통이 많기 때문에 도로 완공시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주택대출 규제 서민 불편없게"

윤증현 금감위원장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본보 26일자 1면〉와 관련, "서민들의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과 건설회사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편함이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26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향후 주택담보대출 감독과 관련,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등에 대한 투기목적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엄격히 감독해 나갈 것을 지시하는 한편,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대출 등 서민들의 실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黨政 "급식 위탁업체가 모든 책임"

식품위생법 개정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탁급식업체들이 식자재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3·7·8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급식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이미경 위원장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현행법상 위탁급식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중·고교 위탁 급식의 직영급식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협력을 추진키로 하고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급식관련 6개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제약품 기업광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멋진 한 컷 스토리가 좋은 좋은 광고문을 수상작품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괄해봅니다.
그 소원이 곡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